

전남 지난해 농수산물식품 수출 역대 최고

4억6000만 달러...전년비 2.2% 증가
코로나19 어려운 여건 딛고 큰 성과
김치·장류 늘어...일본·미국 1·2위
올해도 11개 수출지원사업 적극 추진

전남도가 지난해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2.2% 증가한 4억6000만 달러를 달성, 역대 최고 성과를 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5억5000만 달러를 수출목표액으로 정한 전남도는 온라인 플랫폼 확대 구축과 해외 판촉행사 지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등 11개 수출지원사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2016년 3억2000만 달러를 시작으로 2017년 3억5000만 달러, 2018년 3억9000

만 달러, 2019년 4억5000만 달러, 2020년 4억6000만 달러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산가공식품과 수산물 등이 큰 성과를 냈다.

농산가공식품의 경우 김치와 장류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9년 7500만 달러 보다 16.1% 증가한 8700만 달러를, 수산물은 김, 조기, 해조류와 가공식품이 성장해 2019년 2억6200만 달러 대비 5.5% 증가한 2억7700만 달러를 달성했다.

그러나 전라남도 10대 수출효자품목 중 하나인 톳의 경우 주로 일본내 학교 단체급식용으로 수출이 이뤄졌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대체 등 단체급식 제한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배도 저온피해와 태풍 낙과로 생산량이 급감해 수출이 2019년보다 저조했다.

국가별 수출액은 일본이 2019년 대비 1.6% 감소한 1억4800만 달러로 최대 수출국으로 확인됐으며, 미국이 32.5% 증가한 1억300만 달러, 캐나

다는 22.1% 증가한 1400만 달러, 러시아는 46% 증가한 1000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 품목별 증가액의 경우 김이 6315만1000 달러로 가장 많았고, 전복 219만3000 달러, 유자차 139만5000 달러 등으로 농수산물가공식품과 수산물의 높은 수출 호조로 전년 대비 32.5% 증가한 1억 달러 이상을 기록, 일본에 이어 전라남도 수출 대상국 2위에 자리매김했다.

또 캐나다는 김 1190만1000달러, 버섯류 37만2000달러, 장류 2만5000 달러 등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는 도내 명품쌀 14만2000 달러를 판매해 새로운 시장 개척 발판을 마련했다.

이상진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 요인은 미국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개설 및 상설매장 확대, 화상 온라인 수출상담회 진행 등 비대면 마케팅으로의 신속한 전환과 함께 중·일 위주에서 북남미, 동남아, 러시아 등으로 수출선 다변화를 집중 전개한 결과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전남도가 행정안전부 '2019년과 20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광역 지자체 분야에서 2019년, 2020년 모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2019·2020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총 5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2019년과 2020년의 실적을 각각 동시 평가했으며, 전남도는 2년 모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영예를 안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국민이 청구 요청 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정보 공표'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를 원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정보공개 청구인의 만족

도 수준을 보는 '고객관리' 등 모두 4개 분야를 평가한 제도다.

전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국민 관심도가 높은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사전정보 공표' 분야와 국민 정보공개 수요를 분석하고 반영한 '고객 만족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남도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라남도 모든 공무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국민 눈높이에 부응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전남도는 내달 1일까지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고용확대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정지원 사업 참여 대상을 모집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전남도는 올해 85억원을 배정해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 등을 지원한다.

특히 사업개발비는 제품 연구 및 개발, 홍보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성장 발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한 기업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적인 고용창출, 사업내용의 우수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두고 현장실사 및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말 확정된다.

선정기업들은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최대 50명의 인건비(최저임금 수준)와 함께 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개발비로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전남의 지역특성이 반영된 모델 발굴 및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등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재정지원사업으로 일자리창출 97개 기업에 88억원, 사업개발비 78개 기업에 12억원, 지역특화 11개 기관·단체에 6억원 등을 지원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창출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장정희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에 밑거름이 될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지속 발굴해 전남지역 경제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성남에서 설맞이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전남도가 김스클럽과 협력해 26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김스클럽 야탑점에 도내 22개 시·군 추천 농수특산물 250여개 품목으로 '설맞이 남도장터'를 개설해 운영했다. 여수 돌산갓

김치를 비롯 나주 잡곡, 광양 매실, 고흥 석류, 장흥 표고버섯, 함평 꿀, 영광 굴비, 장성 꽃감, 완도 김, 진도 미역, 신안 젓갈 등 전남대표 농특산품들이 시중 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돼

큰 인기를 누렸다. 전남도는 이번 직거래 장터에 이어 29일부터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과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도 설맞이 판촉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어업인 지원제도 개선...경영안정 유도 직불제·보험료 등 지원 확대

전남도가 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해 정책 추진과정에서 걸림돌로 지적된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에 나선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수산 공익직불제 확대를 비롯 전복·해상가두리 양식어가 대상 재해보험료 지방비 지원 한도 상향,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방식 개선, 수산물 택배비 지원 등 올해 제도개선 및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특히 수산 공익직불제는 수산업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을 위해 어업인들에게 직불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조진불리지역 직불제'만 시행됐으나 올해부터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직불제가 추가 신설돼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전국 제일의 청정 수산물을 생산중인 전복·해상가두리 양식여가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가입중인 재해보험료의 지방비 지원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

해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도 개선했다. 지난해까지 어업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대출 실행시 자동으로 지원이 연계돼 대상 어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내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어업인·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택배비 50%를 지원해 소비촉진을 유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종자관리소, 지난해 벼 종자 생산 '풍년'

장마·태풍·병해충 여건 불구

전년보다 14% 증가 208t 생산

전남종자관리소는 지난해 각종 자연재해 등에 따른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대책에 나서 종자 생산량이 증가한 성과를 보였다.

26일 전남종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산 벼 생산량은 350만7000t으로 평년 대비 12.6%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남종자관리소는 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태풍, 각종 돌발 병해충 발생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2019년 보다 14.2% 증가한 총 208.3t의 벼 종자를 생산한 성과를 냈다.

특히 총 36ha 규모의 면적에 새일미, 신동진, 새청무 등 8개 벼 품종을 재배해 10a당 생산량이 전국 평균인 483kg 보다 94kg 많은 577kg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립종자원이 실시한 종자검사에서 49.3t의 원종 모두 합격해 품질도 인정받았다. '원종'은 농가에 실제 보급될

'보급종' 종자의 이전단계 종자를 말한다.

전남종자관리소는 벼 재식거리를 기존 3.3㎡당 60주에서 50주로 조정해 재식밀도를 줄이고, 출수 전 이삭거름을 충분히 사용하는 등 초기 병해충 예방 위주의 종합방제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것이 생산량 증가의 주 요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생산한 벼 종자 208.3t 중 원종 49.3t은 국립종자원에 공급되고 나머지 159t은 매각될 계획이다. 쌀값 상승의 영향으로 생산물 분양금액도 전년대비 6800만원 늘어난 3억6000원으로 예측돼 도 세입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호 종자관리소장은 "종자 생산량은 물론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안정적인 우량종자 생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종자관리소는 광주시 광산구 북룡동과 나주시 반남면 일대 86ha의 면적을 관리하며, 순도 높은 원종 종자를 생산해 국립종자원에 공급하는 보급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곤충사육장 + 태양광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